

준비된 자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코치

이름: 김보배

작성일: 2010년 7월 14일

[ 2010년 5월,  
문화선교 차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.  
제가 학교로 들어가기 전,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.

“들어가면 빛이 나는 자가 있다. 준비된 자다. 이름을 가르쳐 줄테니 바로 가서 말씀 전해라.”

하시며,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제게 불러주셨습니다.  
실제 교실에 들어 갔더니  
주님이 말해주신 그 이름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.  
그 학교 교역자님이 말씀을 가르쳐,  
지난 6월에 수료를 마쳤습니다.

그 후, 저는 준비된 자를 전도하니 너무 쉽다는 것을 깨닫고,  
준비하신 자를 찾도록 새벽부터 간구했습니다.

주님의 말씀 첫째날

내가 니 마음을 잘 안다.  
준비된 캠퍼스 찾도록 해줄게.  
오늘 오후 세시에, 서울대입구역 커피숍에 가면 성경을 펴 놓은 여대생이 있을 것이다.  
나를 그 마음에 모시고 싶어 하는 자다. 의인이야.  
내가 시켜서 왔다고 해라. 마음에 곤고한 것 풀어 줄테니  
속는 셈 치고 2시간만 니 이야기 들어달라고 해라.  
내가 함께 하는 것이 증표다.

(실제로 그 날 말씀하신 장소에 시간 맞춰 가 보았더니, 여자 대학생이 성경을 손수 필사하고 있었습니다.  
말을 꺼내보니,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기다린다 했습니다.  
그래서 제가 재림의 말씀을 전하자,  
이단인 것 같다 의심하며,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)

주님의 말씀 둘째날

저희 학교 캠퍼스에서 회원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하던중  
주님께서 오셔서 준비된 자를 주시겠다며, 제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.

제가 포도원에 서 있는데  
한 포도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영글어 있었습니다.  
그 때, 다른 자가 와서 그 포도를 따서 제게 주었고

저는 그 포도를 맛있게 먹는 환상이었습니다.  
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오늘은 다른 사람이 네게 준비된 자를 연결시킬 것이다.”

( 이 날, 실제로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을 연결 받아 만났는데,  
재림의 말씀을 전하니 감동받아 울면서  
왜 다른 교회들은 이런 말씀을 안 전하냐고,  
섭리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 직접 계시 받아 주는 말씀을  
꼭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.  
현재 3주만에 고급강의까지 다 듣고,  
섭리 역사를 깨달아 교회도 옮겼습니다. )

주님의 말씀 셋째날

(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, 또 환상을 보이셨습니다.  
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 있었고,  
제 앞에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.  
흰 색 자켓을 입고 검은 생머리가 등의 중간까지 왔습니다. )

(실제로 그 날, 갑자기 천국 성령운동을 가게 되어  
휴게소에 갑자기 들르게 되었습니다. 휴게소를 둘러보니,  
환상 중에 보았던 똑같은 여학생이  
친구들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.  
제가 가서 말을 걸자, 그 여자는 제게 친절하게 반응 했지만  
옆에 친구들이 저를 쫓아내어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

이 네 번의 준비된 자 전도 후,  
주님이 분명히 제게 준비된 자를 주셨음이 확실한데  
왜 받은 잘 되고, 받은 잘 안되었냐고  
깊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환상을 보이셨습니다.

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니 조개가 건져 나왔습니다.)

“조개 입을 니가 억지로 열 것이 아니요,  
스스로 입을 열게 해야 한다. ”

(그리고 또 다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.  
코트를 입은 사람이 태양이 쬘자 스스로 겉옷을 벗었습니다.)

“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게 해야 돼.”

(다시 주님께서 손수, 겨자씨를 제 그릇에 가득 부어주시며

이 모든 비유를 풀어 말씀하셨습니다.)

주님의 말씀

천국은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.

많은 겨자씨를 너에게 주었으나, 한꺼번에 심지 말고  
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심어야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.

(무슨 말씀이에요? 씨앗이 뭐예요?)

성경에 내가 설교한 ‘씨 뿌리는 자의 비유’를 보아라.

씨가 무엇이나? 복음이다.

이 시대에 너희가 외쳐야 할, 내가 준 복음이고,  
니가 정말 사랑하는 재림의 소식이다.

준비된 자들을 만나는 것은 옥토 밭을 만나는 것과 같다.

아무리 옥토 밭을 만났다 하더라도,

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앗을 준다 하더라도,

그 모든 복음 씨앗을 한 번 구덩이를 파서 한 번에 다 심어선 안 되는 것이야.

그렇게 하면 땅 안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고 썩는다.

한 씨가 썩으면 옆에 씨까지 다 썩어서

결국은 옥토밭이라 하더라도 결실을 볼 수 없다.

또한 씨가 자란다 하더라도

서로 얹히고 얹혀서 절대 완전하게 자라 열매 맺을 수 없다.

인간적으로 사근사근 잘 다가가야지.

친해지고, 같이 먹기도 하고,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거야.

부담없게.

(인간적으로요?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실 때도

인간적으로 다가가셨나요?

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?)

막달라 마리아는 칼 같은 말씀으로 전도했다.

그녀는 말씀을 좋아했다.

(베드로는요?)

배를 한 번 빌려 탈 수 있겠냐고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가셨다.

전도자는 사람의 속을 볼 줄 알아야 한다.

베드로는 그 날 고기가 안 잡혀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느냐.

내가 그 속을 다 알았다.

아주 인간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가서,

점점 불같은 말씀을 전한 뒤,

능력을 보여, 내가 어떤 사명자인지 깨닫게 하였다.

(예수님, 준비된 자를 계시해 주셔서 만나게 되니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가고 전도가 정말 쉽던데 어떻게 하면 섭리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?)

너희 선생이 준비된 자 만났던 사건들을 보아라.

기도하다 계시 받아서, 제자에게

어디에 가면 어떻게 입은자 있을 것이니 데려오라고 해서 전도한 자도 있었고

제자들이 자기 가족이나 누군가를 데려왔을 때 그 사람 안에 엄청난 뜻이 있음을 꿰뚫어 알기도 했다.

또, 선생이 직접 전도할 때에는

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나와 미리 약속해 놓고 나가기도 했었다.

이 모든 것이 선생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만 생각지 말라.

이것들은 나의 능력이었다.

선생은 나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했고,

나의 육신 되겠다고, 내 신부 전도하겠다고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갔을 뿐이다.

그가 목숨 걸고 기도하니 나도 목숨 걸고 들어주지 않겠느냐.

결국 그와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여

이 찬란한 섭리 역사를 이루어 왔다.

이 시대의 전도하는 너희들도 똑같다.

너희들의 기준자 선생이 전도했던 방법대로 기도하고, 간구하고, 나와 약속하고, 나에게 매달리고, 응답받고 나가라.

응답받고 나가면 된다.

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뜻있는 자들이 있다.

할 수 있다. 내가 능력 주는데. 담대 하라.